

## 오늘의 大學問題

崔 載 勳

(釜山大 行政大學院長)

오늘날 大學教育이 매스 프로덕션教育이 됨으로써 大學도 많이 變貌하였다. 大學院教育의 強化는 規模의 mamos화에서 派生하는 病理的 現象을 克服하는 데 必要不可缺한 對策이 되었으며 또한 教授의 役割도 증대 소홀히 되기 쉬웠던 教育者의 使命이 強調되기에 이르렀다.

### I. 大學의 變貌·大學院教育의 強化

오늘날 우리 나라의 大學教育은 學生數의 폭발적인 증대와 規模의 mamos화로 말미암아 큰 問題를 안게 되었고, 이러한 大學問題를 分析하고 그 앞날을 展望하는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大學의 危機」를 부르짖기도 한다.

1945년에 우리 나라의 大學生數는 7,819명이었는데, 이 數가 1952년에는 31,000명을 넘어섰고, 1954년에는 62,000명, 1960년에는 93,000명, 4·19 이후의 과도정부 아래에서는 134,000명 가까이 되었다. 그러다가 5·16 혁명후의 1963년에 105,000여명까지 줄어들었다가 60년대가 끝나는 1969년에는 다시 133,000명 정도로 늘어났고 1970년대 초에는 약 150,000명이 되었다가 1979년에 330,000명으로 약 두 배 가량 늘었고, 이 數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불과 3년 사이에 두 배 정도로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갈 추세

에 있다. 이에 비해 教授의 數는 1971년에 8,000여명이던 것이 1980년 이후에도 아직껏 20,000명에도 못 미치고 있어서 教授 1人當 學生比가 30명을 훨씬 웃돌고 있다.

오늘날 大學 數의 急増과 女學生을 포함한 大學生 數의 急増이라는 現象은 거의 全世界的인 現象이다. 美國뿐만 아니라 獨逸, 英國, 佛蘭西 日本 등에서도 그러한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매스 프로덕션 教育에 의한 規模의 mamos화는 大學이라고 하는 것의 機能마저도 質的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은 大學의 變貌를 일으키게 한 契機는 뭐니뭐니 해도 美國風의 大學의 理念에 있는 것 같다. 大學을 學問研究의 중심으로 삼고 大學의 目的을 學者의 養成에 두었던 獨逸風의 大學이나 또는 높은 教養을 몸에 익히게 한 紳士의 養成을 大學의 使命으로 하였던 英國風의 大學은 모두 요컨대 엘리트를 위한 大學이었다. 그러므로 象牙塔이라는 말이 그것에 꼭 알맞는 것이었다.

그러나 美國風의 大學은 市民을 위한 大學이요 大衆을 위한 大學이며, 그것은 閉鎖된 大學이 아니라 開放된 大學이라 할 수 있다.

大衆을 위한 大學의 매스 프로덕션教育에 있어서는 先生과 學生 사이에 人間的 接觸이 적다. 知識의 덩핑은 있어도 人間教育이 소홀이 되기가 쉽다. 또 大學의 數나 學生數의 急增으로 大學教授의 質도 一般的으로는 低下하는 傾向이 있다. 물론 우수한 學者도 많기는 하지만 大學教授로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大學教授라는 名譽를 걸머지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진 것 같다. 오늘날 大學에 대한 學生들의 欲求 不滿 가운데는 약간의 教授에 대한 不滿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教授의 質의 水準의 低下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大學施設의 貧困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擴張할 수가 있지만 훌륭한 教授는 돈으로도 살 수가 없으니 確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늘날 教授의 養成과 確保를 위해서도 大學院教育의 強化가 絶실히 요청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教授라는 열매가 여는 魔法의 나무」인 大學院 教育의 強化를 強調하면서도 專任敎員의 配置나 獨自的 施設의 整備는 실로 忘却되고 있다. 이제는 大學院도 特殊大學院까지 포함하여 그 數나 學生數의 量的 膨脹은 대단하여서, 도저히 현재의 學部의 敎員들만으로써는 그들의 碩·博士學位論文의 指導가 불가능한 단계까지 와 있다. 또 大學院教育의 機能 중의 하나가 教授의 養成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大學院教育의 커리큘럼 속에 學術專門分野의 教授法과 心理學 등 必須의 敎職科目이 開設되어야 하고 그 뿐만 아니라 大學의 教育·研究·管理 등의 機能, 學生의 人間研究, 大學史 등을 總括한 이른바 「大學學」같은 것도 빨리 成立시켜 必須의 科目으로서 開設해야 한다.

## II. 教授의 役割·大學의 自由

물론 大學에는 研究와 教育이라고 하는 二大 機能이 부여되고 있다. 따라서 大學教授도 스스로를 研究者인 동시에 教育者이기도 하다고 自處한다. 그러나 意識이나 行動에 있어서 이 두

가지 教授의 役割 가운데서 그 어느 쪽에 더 重點을 두느냐 하는 것은 個人에 따라 혹은 소속하는 大學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附屬研究所나 大學院 등에 소속하는 教授는 一般的으로 研究者로서의 意識이 높을 것이고 또 研究活動도 상당히 활발할 것이다. 이에 대해 專門大學이나 敎養學部에 소속하는 教授는 一般的으로는 研究者로서의 意識이 尙 낮다 하더라도 실제의 研究活動은 그렇게 활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大學教授는 거의 모두가 적어도 口로는 研究를 대단히 重視하고 존중한다. 만약 大學이 研究라는 機能을 상실한다면 中·高等學校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 大學教授들은 研究와 教育의 關係를 특별히 깊이 생각하는 일 없이 그저 훌륭한 研究者는 곧 훌륭한 大學教授이라고 하는 樂天的인 생각으로 研究와 教育의 兩立 내지는 一體化를 믿고 研究第一主義를 信奉하기 때문에 教育보다는 研究를 더 志向하는 것이다.

研究와 教育의 一致라고 하는 豫定調和說은 분명히 지난날의 時代의 아카데미한 大學에서는 통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거기서는 學問研究가 최고의 機能으로 간주되고, 모여든 學生은 少數의 엘리트였으며, 稀少價値를 가지고 있던 學問이나 學者에 대한 尊敬心이 自明的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學者로서 훌륭한 분일수록 존경받고 이른바 카리스마적인 教育力을 가질 수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러한 風氣는 거의 소멸하고 말았다. 大衆을 위한 大學의 大衆化한 學生에게는 매스·프로덕션教育이 불가피해졌고 그들은 研究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할 정도의 존경도 의욕도 능력도 갖지 않는다. 오늘날의 學問은 細分化되고 專門化되었으며, 一般敎養을 갖춘 市民의 育成을 目標로 하는 現代의 美國風의 市民을 위한 大學에서는 學問도 教育的으로 再編成되고 있다. 學問이나 教授에 지난날과 같은 無條件의 존경은 사라지고 심지어는 불신이나 규탄까지도 일어나는 판이다. 이러한 時代에 研究와 教育의 樂天的 兩立, 훌륭한 研究者가 곧 훌륭한 教育者라고 하는 公式은 이미 통용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다.

오늘날의 學生이 教授에게 요구하는 것은 알기 쉬운 講義, 재미나는 講義이고 때로는 學生들과 함께 레크리에이션에도 참가하며 現實의 社會문제도 다루기도 하는 그런 것이다. 많은 教授들이 專門的인 研究論文이나 學術的인 著作보다는 적당한 부피의 要領 있게 整理한 教科書나 혹은 저널리스트한 短論文을 쓰는 能力으로 學生들의 人氣나 社會對象 또는 政治權力者의 관심을 사는 일에 더 열을 올리는 것 같다. 물론 단 순히 學生들의 人氣에만 迎合하려는 이러한 教授의 姿勢가 참된 教育은 아니고 또한 教授의 責任도 아님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여하간 研究와 教育, 研究者와 教育者의 自動的 兩立이라고 하는 牧歌的인 豫定調和說이 이제는 오늘날의 大學에서는 通用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은 확실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의 大學教授에게는 學生에 대한 教育的인 役割로서 研究者로서의 役割 이외에도 「카운셀링」, 「가이던스」, 그밖의 종합적인 學生指導에 관한 많은 教育的「義務」가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教育的 義務가 많은 心勞와 時間을 요구하는 「雜務」로서 받아 들여지고 있으나, 그것이 비록 研究者로서의 大學教授에게는 義務도 責任도 아닐런지 모르지만 教育者로서의 大學教授에게는 당연한 義務요 責任인 것이다. 특히 오늘날 學園의 다소간의 각종 소요사태는 世界的인 現象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스페인에서의 學生暴動, 라틴아메리카에서의 學生暴動, 또 가나나 나이지리아에서의 學生暴動 등과 같이 開發途上國들에서 뿐만 아니고, 캘리포니아大學, 미시간大學, 위스콘신大學 등의 學生騷動, 西獨의 보쿰大學, 日本의 여러 大學, 심지어는 蘇聯의 大學生들, 中共의 北京大學 등 共產圈世界의 大學도 그 例外가 아닐 만큼 거의 全世界의 時病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속에서 教授가 研究者의 使命만 強調하고 教育者의 使命은 沒覺한 채 安逸하게 대 처할 수가 있겠는가.

오늘날 規模가 막모스化한 大學에서 學生은 學生番號에 의하여 컴퓨터로 처리된다. 教授는 이러한 非人格的 機構 속에서 人間的 接觸에 의한 세미나制나 튜터제를 통해 人格的인 教育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동시에 官僚制的 教育機構

의 要員으로서의 役割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獨逸에서 洪볼트에 의해서 기초가 부여된 이른바 「大學의 自由」(akademische Freiheit)는 가르치는 自由(Lehrfreiheit), 배우는 自由(Lernfreiheit), 轉學의 自由(Freizügigkeit)의 세 가지 內容을 갖는 것으로 그것은 명백히 研究와 教育을 위한 自由이었다. 이것이 獨逸에서의 오소독스한 형태에서의 大學의 自由이지만, 通俗的으로는 大學의 自由에는 또 다른 한 측면이 있다. 이것은 슈라이엘마헬의 大學論에서 볼 수 있는 것인데 당시의 獨逸의 一般人들은 大學의 自由라는 말에서 다소간 다른 한 측면을 連想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大學의 學生들에게는 어느 정도는 自由奔放하게 行動할 特權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를테면 보통의 世上의 風習을 無視한 服裝을 한다거나 혹은 麥酒店에 痛飲하여 放歌激論하거나 그 뿐인가 때로는 決闘도 더러는 한다. 世人들은 그것을 寬容的으로 너그러이 보아 넘기는데 이것을 大學의 自由라고 생각한 것이다. 바꾸어 말한다면 大學生들에게는 다소간의 治外法權的인 行爲를 할 特權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것을 大學의 自由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 슈라이엘마헬은 그 理由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大學生活에 있어서는 各種의 生活의 方式이 강하게 자유로이 나타나고 있어서 他社會의 諸方面에 있어서 同型的으로 되고 있고 無性格的으로 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그렇다면 大學의 自由는 그런 것에 대한 健康한 對照物로서 甚 중요한 反對理由가 없는 한 許容되어도 좋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말한다면 大學生活의 時期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自己의 獨自의 才能을 辨別하는 것을 배우는 時期이며 自己의 職分을 형성하는 時期이다. 또 人格의 依存과 服從의 상태로부터 自立的인 依存으로 移行하는 時期이며, 自己의 性格이 確立되는 時期이다.」

이런 식의 思考方式이 아마 보통이었을런지 모르지만 또 이런 식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思考方式도 없지는 않았다. 이를테면 피히테가 그러하였다. 피히테는 오소독스한 형태로서의 大學

의 자유의 주장자이며 오히려 그 기초를 부여한 최초의 한 사람이었다. 피히테는 學問이나 眞理의 尊敬을 說破하고 眞理探究의 場으로서의 大學을 後日에 실현되어야 할 未來의 時代像을 神의인 理念(die göttliche Idee)의 형태로 스스로의 속에 키워 나가는 學問의 場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通俗의 世界는 이 神의인 理念을 日常의 卑俗性으로 끌어내려 그 純粹性을 상실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理念을 간직하는 學者의 養成이 大學의 任務라고 한다면 그러한 人物의 養成은 단순히 外的인 立法을 통해서가 아니고 도리어 自己의 內的인 立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즉 大學의 自由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피히테는 이러한 형태로 大學의 自由를 說破하였는데, 그 根本에는 말하자면 大學의 倫理的自律性, 自主性의 主張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 슈라이엘마헬이 그것을 寬大 한눈으로 인정하려 했던 大學生의 自由奔放으로서의 大學의 自由는 지나치면 非倫理的으로 되어 결국 大學의 尊嚴과 自由를 침범하게 된다. 그런 까닭으로 피히테가 그것에 反對하였던 것이다. 그는 大學의 自由를 파괴하는 것으로 두 가지로 들었다. 하나는 外部로부터의 壓力에 의한 破壤이고 다른 하나는 內部로부터의 崩壞이다. 피히테는 大學生이 一般人들조차 擯斥할 만한 非倫理的인 行爲를 하는 것을 內部로부터의 崩壞事由로서 들었다. 피히테가 본 바로는 그러한 學生은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는다. 그러한 「공부하지 않는 學生들의 階級」(jene Klasse der nicht studierenden Studenten)이야말로 大學의 自由를 內部로부터 파괴하는 者들이다. 피히테는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이다.

柏林大學의 最初의 總長은 훔볼트이었다. 훔볼트는 創立時 國家에 의해 總長으로 任命된 것이었다. 그러나 柏林大學의 體制가 정비되고 教授들의 互選에 의해 第1回の 總長에 選出된 것은 바로 피히테였다. 그러나 學生間에 問題되는

行爲가 있어 피히테는 그것을 處罰하려 했지만 슈라이엘마헬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생각에서 그 處罰에 反對하였다. 그래서 결국 피히테는 總長을 辭任하는 결과가 되었다.

물론 슈라이엘마헬의 主張에도 충분한 理由가 있긴 하다. 大學生이 自由奔放하게 行動하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教育的인 見地에서는 너그러이 寬大하게 보아 주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治外法權의인 特權으로서 行使해도 좋은가? 거기에 바로 問題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극단적으로 받아 들인다면 피히테가 말하는 것과 같이 大學을 內部로부터 破壤시킴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나라의 大學生들이 피히테가 말한 바 「공부하지 않는 學生들의 階級」으로 되어 공부하는 양고 治外法權의인 行爲를 일삼는다면 그리하여 결국 大學의 自由를 內部로부터 破壤시키는 것으로 된다면 피히테의 지난날의 가르침은 우리 나라의 大學教授들에게 오늘날 教授의 教育的 責任과 관련하여 貴重한 敎訓을 주는 바 있다고 생각된다.

大學이 다소간 騷擾를 일으키는 問題를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今日에는 거의 全世界의으로 共通의인 大學問題의 어려운 宿題의 하나였다. 이제는 世界的으로도 颶風一過의 느낌이 있지만 우리 나라의 大學은 다행히도 그동안 制度的인 教育改革으로 大學街가 勉學분위기의 조성 과 공부하는 大學, 연구하는 大學으로서의 安定을 되찾고 완전히 正常化되었으며, 물론 이러한 結實이 政府當局의 그동안의 文教政策에 힘입은 바가 크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 大學教授들의 教育的 役割로서의 學生指導에 대한 所信있는 積極的 對應이 큰 役割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다시 한번 피히테가 강조한 大學의 倫理的自律性 및 自主性을 吟味하고 진정한 大學의 自由의 守護야말로 大學의 바른 進路임을 깨우쳐 보고 싶다. \*